소년단

1956. 6

1956년 6월 6일!
우리 나라 소년단원들은 조선 소년단 창립 열돐을 뜻깊게 맞았다.

× ×

앞표지…………"소년단 명절" 미술 대학 예'과 김 인준 그림

따뜻한 품속에서

조선 소년단은 1946년 6월 6일에 창립되여 금년 6월 6일로 열돐이 됩니다.

빛나는 길을 걸어온 조선 소년단에는 지금 4,813대에 120만의 소년단원이 뭉쳐 있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품 속에서 민청의 친절한 지도를 받으면서 사회주의를 향하여 꽃피여 나가는 우리 조국의 훌륭한 일'군으로 자라나는 소년단원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입단 서약식!
붉은 넥타이를 매며 소년단 휘장을 달던 날의 기쁨을 오래 간직한다. 조국의 훌륭한 일'군들이 될 것을 맹세한 날!

소년단 기'발 아래

김 영

소년단 열돐 맞이
우리의 명절을 노래하는 듯,
소년단기 높이 휘날리는 푸른
　하늘에
훨훨 날아도는 비둘기야,
　비둘기야!

너도 너도 오늘이 즐거웁지
자랑찬 우리 기'발
소년단 기'발 날리며
십년을 자라온 우리의 명절이

높이 휘날리는 소년단 기'발
　아래서
박 원진 형님도 당웅실 누나도
　자랐단다.

조국을 위해 싸운 그들의
　이름으로
더욱 빛나오른 우리의 기'발이
　란다.

이기'발 하늘높이 펄펄 날리며
나아가는 밝고 넓은 우리의 앞길
조선 로동당이 열어 주신 길
노래로 가득찬 길이란다.

공장 굴뚝마다에 연기 높고
4층 5층 새 학교 창'가마다에
노래 소리 웃음 소리 꽃피는
　거리
자랑스런 이 거리는 우리의
　거리란다.

아동공원 꽃마당서 뛰놀 때에도
해'빛 따사로운 교실에서
새 지식 넓혀기는 시간에도
우리는 잊은 적 없단다.

고이고이 우리들을 품 안아
십년을 키워 주신 우리 나라
크나큰 고마움에 보답할 것을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오늘은 우리의 날,
소년단 열돐 맞이'날,
가슴마다 붉은 넥타이 꽃을
　피우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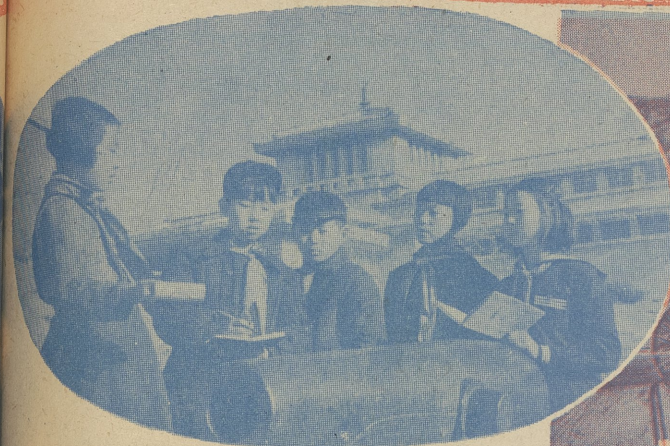
쇌쇌 쇳'물 녹여 내는 기사로
크나큰 집 세우는 건축가로
넓은 논벌에 꼼빠인을 몰아
금 물결 거둘 운전수로 자랄것
　을!

우리 나라 남쪽 땅
헐벗고 굶주린 동무들에게
우리와 꼭 같은 행복을 나누기
　위해
민청 형님 뒤따라 나아갈 것을!

우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듯
소년단기 높이 휘날리는 푸른
　하늘에
훨훨 날아도는 비둘기야
　비둘기야
너도너도 오늘이 즐거웁지!

나날이 꽃펴가는 우리 나라를
　위해,
남조선의 가엾은 동무들과 함께
우리 행복 고루 나눌 그날을
　위해
배우며 준비하는 우리의 날이!

소년단원들은 아무 일이나 모임에서 의논해서 하군 한다. 학과 학습을 어떻게 도우며 실습지를 어떻게 가꾸며 행군은 언제 어디로 떠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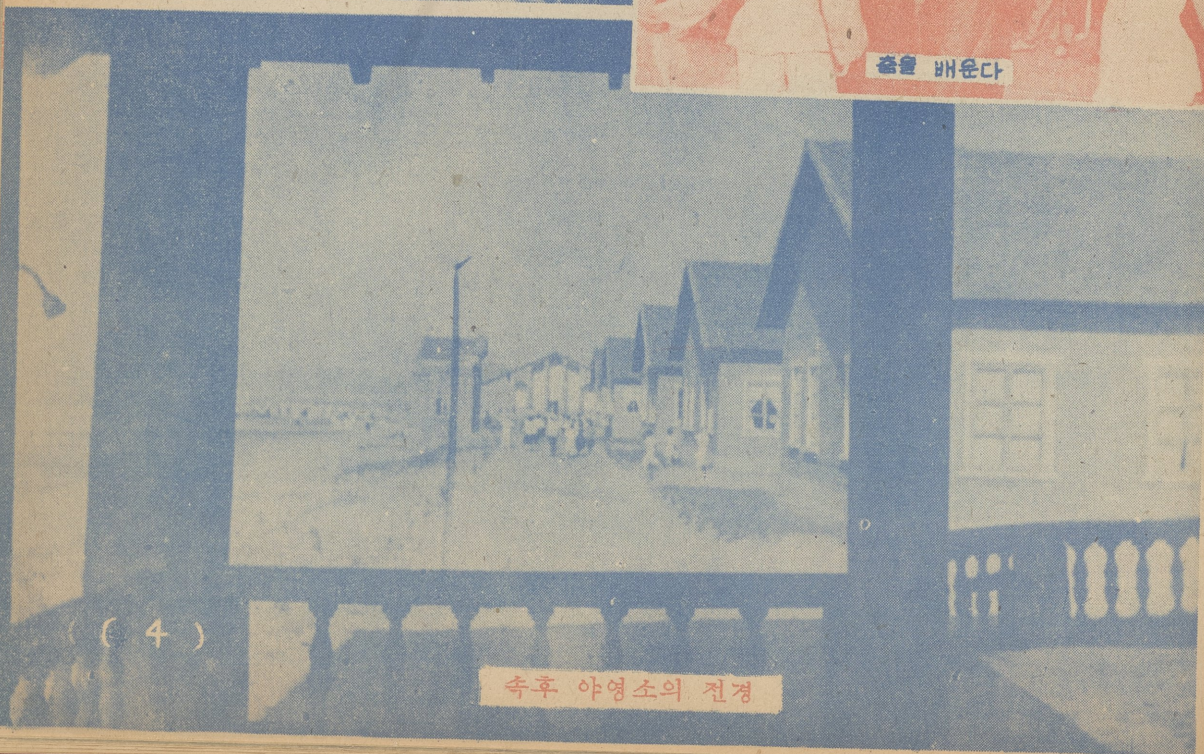
소년단원들은 책을 사랑한다. 읽은 책 이야기 모임도 재미 있었지!

자, 견학을 떠나자! 옛날 대동강에 쳐들어 왔던 미국 배 샤만호를 불사르고 빼앗은 대포도 있는 력사 박물관으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인민 군대 형님들에게 소년호 비행기, 땅크를 보내기 위하여 폐품을 모았고 전후 복구 건설을 돕기 위하여 폐품을 모았다.

„우리는 승리했네!"

„망원경에 모래찜하는게 비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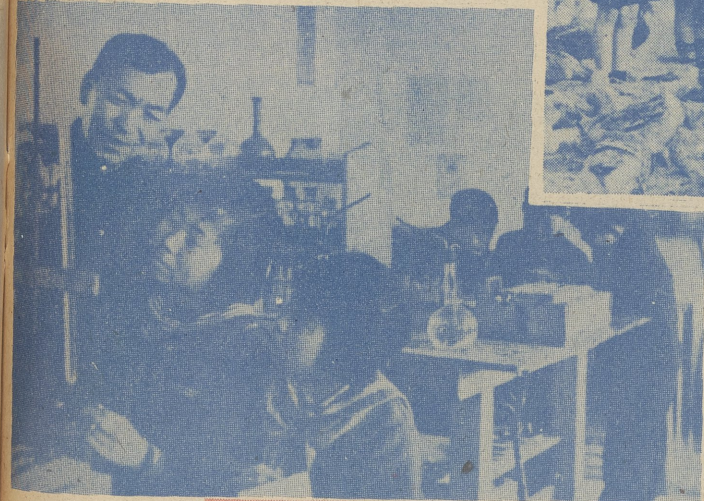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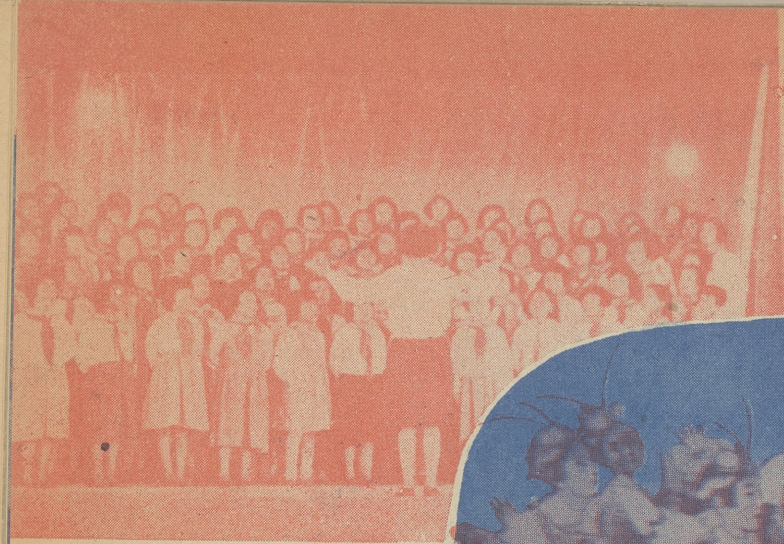
즐거운 야영! 공화국의 소년단원들은 동해 바다'가에 있는 자기들의 훌륭한 야영소에서 즐겁게 여름 방학의 한때를 보낸다.

춤을 배운다

송후 야영소의 전경

실습지에서 배우는 것도 즐겁다! 벌써 호박이 열매 맺었지……

과수원에서

앞날의 기술자들! 실험에서 배운 지식을 다져 나간다.

목장의 오리들도 이젠 우리들을 알아 보는구나! 오리들아 먹이를 많이 먹고 어서 자라라!

모형 모터선 경기 대회. 누구의 배가 더 빠른가?

가무극 «행복한 별나라»

형제 나라 삐오네르들과 조선소년단원들의 친선은 날로 두터워 간다.

우리 마을 협동 조합은 자랑도 많아요. 벼 농사 잘 지은 자랑도 있고요.

분단 벽보는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분단의 자랑을 쓰고, 여기에는 만화를 하나 그리자!

튼튼한 몸은 나라의 보배!

산으로! 들로! 바다로!

숲 속의 비밀을 찾아

김 병 익

즐거운 여름 방학이 왔어요.

동무들은 올 여름을 어떻게 보내려나요?

지금 아름다운 조국의 산과 들은 동무들을 부르고 있답니다.

보십시요!

저기 푸른 숲 우거진 고향의 산과 들을 그리고 맑은 물 흐르는 시내와 갈매기 때 훨훨 나르는 조국의 바다'가를!

올여름도 동무들은 자연 속의 비밀을 찾아 행군, 야영, 등산, 답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준비가 되였으면 떠나 볼가요?

자! 가벼운 옷차림에 포충망, 채집통, 그림 도구들을 들고 나서십시요.

어디로 먼저 갈가요?

저기 푸른 숲 우거진 산으로 가자구요.

자 그럼 라팔, 소고대가 앞에 서십시요 그리고 포충망 부대들이 뒤따르고요,

뛰뗴 뛰뗴!

출발 신호 랍니다.

—푸른 산 넓은 들은 우리들을 부른다. 소년단 대렬마춰 야영지로 나가자!…

—쿵다라따 쿵다라따—발걸음도 신나지요.

어느새 벌, 보리 우거진 협동 조합'벌을 지났을가요, 벌써 골방아터 골다미예요.

—자 이젠 머지않아 숲속이예요.

향토 연구반, 동식물 채집반, 모두들 준비를 가추어요.

향토 연구반은 저기 예'성터를 돌아서 봉화봉을 넘구요.

동식물 채집반은 대래'골 시내따라 사짜봉을 넘지요.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 모두 약수터…

—뛰뗴 뛰뗴! 라팔소리—모두들 흩어져도 좋아요.

포충망 든 동무들과 삼각통 든 동무들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하지요.

야! 호랑나비 크기도 하지!

철이네 패에서는 나비를 잡았군요.

곤충 표본 만들라면 날개가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해'빛도 스며들지 못하는 원통 짜작나무, 피나무, 숲속이예요.

그러나 무서워 할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 숲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이것은 은방울꽃, 아기광이밥, 모두 그늘을 즐기는 초본 식물들이지요.

아 이건 또 무슨 풀일가요.

참 신기도 하군요.

가지가 셋에 잎이 아홉씩, 그런데 꼭 한가지에 세 잎씩이 붙었군요

그러기에 이 풀을 《삼지 구엽초》라고 한답니다.

이 풀은 약풀, 배아리 속탈에도 아주좋대요.

우리 나라 산야에는 약초도 많지요.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히 캐야해요.

아, 냄새도 아주 싱그럽군요.

동무들 그러나 아무풀이나 함부로 입에 대서는 안돼요. 산에는 독초도 있으니까요.

—야, 해가 보인다—

벌써 피나무 숲속을 다 지나왔군요. 동무들은 아십니가? 이것이 무슨 나무들인가를?

여기는 침엽수림, 이것은 이깔나무,

거리의 전신주도, 철도의 침목도, 다리목도 바로 이 나무로 만들지요.

참! 나무는 우리 생활에 잠시도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소년단 보호림도 만들어 나무를 가꾸지 않아요!

《딱딱 딱딱!》

저게 또 무슨 소리 일까요?

쉬! 조용 합십시요.

모두 주의 깊게 소리나는 곳으로 살펴 갑시다.

—아 저기 저것! 재간스럽기도 해라!

나무밑에 거꾸로 제법 붙었군요!

통나무에 구멍을 뚫고 큰 나무를 좀 먹는 벌레들을 잡아먹는 따딱구리 새지요.

그래서 《살림의 의사》라고도 한답니다.

우리가 살림속에 소상을 올리는것도 이런 익조들이 들게하기 위해서이지요.

동무들 조심 조심 살펴 보아요.

다른 새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아 벌써 사깟봉 밑에 다달았군요,

—이제부터는 바위를 기여올라야 합니다.

아 우리의 용감한 등산가가 벌써 올라 바'줄을 느렸어요. 모두 차례로 조심 조심 올라야해요. 떨어지면 큰일나지요.

모두들 올랐어요.

자! 저것 보세요, 여기서는 아름다운 우리의 고향 벌이 손 금처럼 보이지요, 저기 비단필처럼 구비 구비 펼쳐진건 우리 고향 생명수 남강물 줄기이구요.

강줄기 따라 얼기 설기 거미줄 처럼 얽혀진 가는 줄기들은 바로 올봄 관개 공사로 새로 생긴 조합 벌의 수로들이고, 저기 마을 어구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새집들은 올봄에 새로 생긴 협동조합 목장이구요.

저 아득히 먼 푸른 언덕에 점점이 보이

는건 국영 목장 양떼인가부지요.

올가을엔 뜨락또르 임경소도 새로 생긴다지요.

—아! 아름다운 우리 고향, 난 어서 커서 꼭 고향의 건설자가 될테야!…

누구인가 웨쳤어요.

그럼 이전 천천히 약수터로 내려갈가요.

개울을 따라가며 가재잡이 개구리 사냥신이 나지요.

돌들과 나무잎을 조심조심 들치시요, 가재 한테 물리면 아프기도 하답니다.

가재는 갑각류 집게발이 있으니까요.

누가 병을 가져왔어요? 병에다 넣어 학교 생물실에 가지고 가면 가재와 개구리 해부도 재미있지요.

아 벌써 약수터에요.

향토 지리 답사반은 어떻게나 되였어요.

그새 많이도 수집했군요.

화살, 조가비, 쇠부치……

이것은 또 누가 그린 그림이나요,

스켓취반 동무들이 그린거래요.

—동무들 보십시요, 우리의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을! 이것은 벌써 300여년전 우리의 선조들이 지은 집이지요. 그런데 이 큰 집을 못하나 쓰지 않고 지었답니다!

—뛰떼 뛰떼!

라팔소리 점심 휴식이랍니다.

모두들 약수터로 달려가 맑은 샘물 한 모금씩 마시고나면 온몸에 새힘이 부쩍 솟지요.

점심시간 끝나면 푸른 숲속 오락회, 보물 찾기 모두 모두 신날테죠.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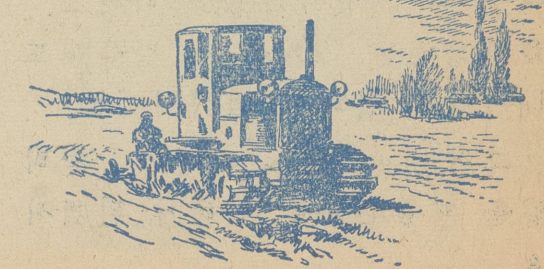
이제는 해도 기울어졌습니다.

오늘 행군은 이만하고 돌아가기로 할가요.

우리들이 채집하고 모은 것은 앞으로 향토 연구반에서 향토지리 사판도 만들고 스크랩도 만듭시다.

그리고 동식물 연구반에서는 표본도 만들고요.

그럼 다음번 행군은 어디로 갈가요?

이제 국영 목장 견학도 끝마치면 다음엔 바다'가로 야영을 떠나지요.

그들은 소년단원이였다

《아마 내가 붉은 넥타이를 매고 동무들 속에 섞인다면 꼭 소년단원인 줄로 알거예요. 초중을 다니고 이 공장에 들어 온지 두해도 안된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소년단 행진곡을 동무들에게 지지 않게 부를 줄 아니까요.

나는 지금 실 뽑는 가락 1,344개를 맡아 가지고 실을 뽑아내고 있어요. 공장에 들어 온지 두해도 못되는 짧은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맡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들 하지요. 해방전에는 200추를 맡을래도 1—2년은 걸려야 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을 배웠는가를 말해야 되겠지요.

내 머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김 봉례 로력 영웅처럼 훌륭히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김 봉례 영웅의 양성공으로서 일을 배우게 된 나는 영웅이 끊어진 실을 어떻게 이으며 기계를 어떻게 돌보며 청소하는가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익혀나갔지요.

—보기만 해서는 안되요. 자 이렇게 직접 제 손으로 해 봐요. 잘못하면 내가 또 가르쳐 줄테니, 일을 빨리 손에 익혀요—하고 김 봉례 영웅은 나를 빨리 기능공으로 키워 주려고 애써 주었어요. 김 봉례 영웅의 이런 말은 지금도 생각나요.

—동무도 소년단원이였다지. 소년단원들은 모두가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 주군 하지요. 나도 소년단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서로 돕군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요. 남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조국과 인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서로 돕는게지요—

내가 남보다 뛰여나게 일을 하게 된것은 김 봉례 영웅과 모범 로동자들에게서 꾸준히 배우며 힘쓴 보람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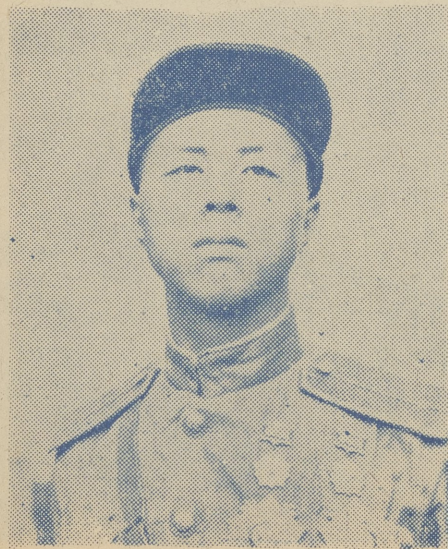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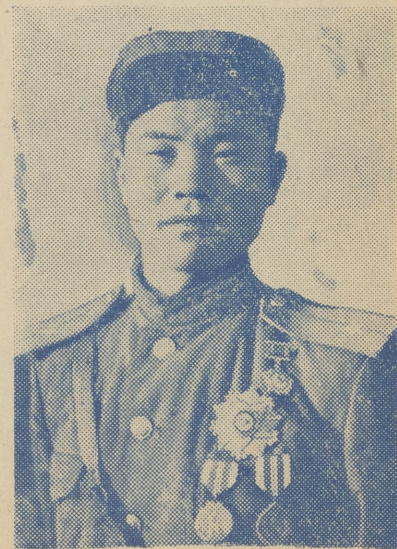
평양시내 소년단원들이 평양 방직 공장을 찾아 갔을 때 모범 로동자 리 정복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 방직 공장에는 청년 직장 제1 분초급단체 위원장인 김 청조 언니를 비롯하여 부직공장이며 기수들인 리 원택 형님, 장 동숙 누님 그리고 1,120추를 맡아 보는 엄 옥숙 누님 등 소년단원이였던 로동자,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 즐겁던 소년단원 시절을 이야기하며 소년단에서 자라 민청원으로 그리고 로동당원으로 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자랑으로 가득찬 10년을 걸어온 조선 소년단에서 생활한 것을 크게 자랑하는 것이였습니다.

참으로 조선 소년단이 지나온 10년은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항일 빨찌산들을 도와 용감히 싸운 아동 혁명단의 빛나는 전통을 이은 조선 소년단의 이름은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소년단에서 자라난 인민 군대 형님 누나들이 세운 위훈과 소

김 기우 2 중영웅

안 윤찬 영웅

년 근위대들의 용감한 투쟁으로 더욱 빛납니다.

우리는 조선 로동당이 조직해 주었고 민청이 지도해 주는 소년단에서 배우며 자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소년단이 지닌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들은 소년단원이였던 영웅들의 소년단원 시절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947년 여름의 어느 날이였습니다. 그날은 전날 저녁부터 계속해 내리는 비에 그만 금천강의 나무 다리가 뜨고 말았습니다.

정수는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며 15리나 돌아서 강건너 마을을 찾아 가는 것이였습니다.

그것은 토요일날, 학교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배학이네 집에서 열리는 반 모임에 나갈 것을 약속해 두었기 때문이였습니다.

정수는 4학년 때 분단 위원이 되였고 분단에서 맡은 일이나 동무들과 약속한 것을 한번도 어겨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 정수 영웅의 소년단원 시절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동무들은 지난 전쟁 때, 351고지 전투에서 비'발 치는 적탄속을 뚫고 고지 꼭대기에 맨먼저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려 전우들의 기세를 더욱 높인 리 정수 영웅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원쑤 미제 강도들을 무찌르는 세해 동안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 군대 형님 누나들가운데는 소년단원이였던 형님 누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년단원이였던 김 기우 2중영웅, 박 원진 영웅, 안 윤찬 영웅, 림 돈욱 영웅들의 이름을

리 정수 영웅

김 봉례 로력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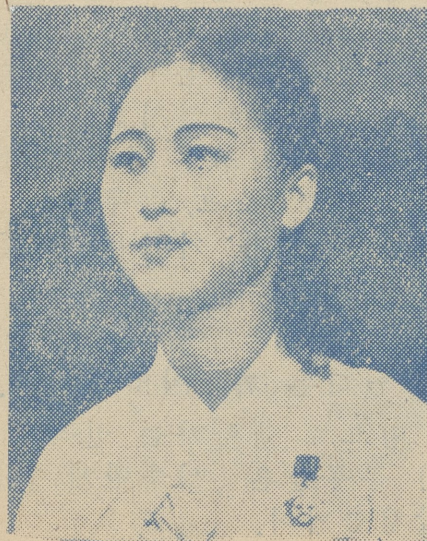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지난 날 소년단원이였던 로력 영웅들과 로력 혁신자들의 모범도 잘 압니다.

《인민의 공장으로 된 공장에서 마음껏 배우며 일하지요. 휴양도 가지요. 또 모든 문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으니 쉬는 시간에는 동무들과 함께 마음껏 즐기며 놀지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뻤을 때는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되던 날과 국가 앞에서 맡은 책임량을 모두 완수해냈을 때였지요》

라고 로력 영웅 당 운실 누님은 말했습니다.

소년단원이였던 그는 공장에서 일하는 기쁨, 국가에서 맡긴 일을 넘쳐 했을 때의 기쁨, 로동당원이 된 기쁨을 소년단원들에게 이렇게 들려 주었습니다.

렴 정자, 김 봉례, 김 정숙 로력 영웅들도 모두 소년단원이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조국을 사랑할 줄 아는 일'군으로 우리들을 키워 주는 조선 소년단은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첫 교양자입니다.

렴 정자 로력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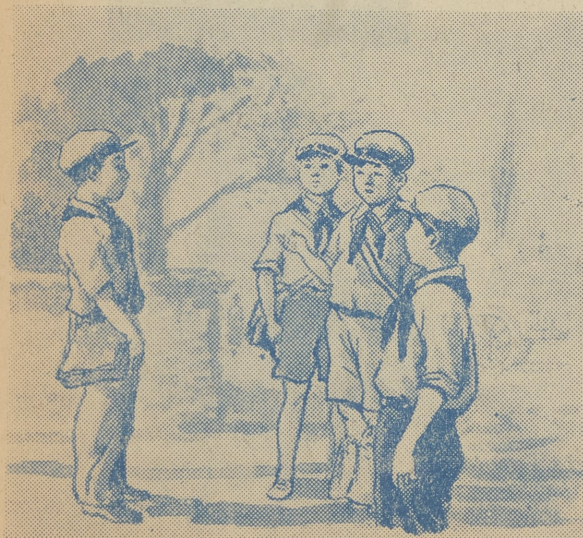
리 정복 누님 (상)
장 동숙 누님 (중)
엄 옥숙 누님 (하)

소설

시운전

리 진 화

익수는 인민반 3학년생입니다. 아니 4학년생입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게 되면 새학기부터 익수는 어김없이 4학년 교실에 들게 될 것이니까요.

익수는 무엇 만들기를 좋아하는 애였습니다. 나무를 깎고 밀고 맞추어 늘상 무엇을 만들지 않고는 못 배겼습니다. 이 담에 기술자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무쪼박, 대패밥들이 널려 있는 익수네 헛간에는 바퀴 없는 꼬마 기관차, 량쪽 날개가 같지 않은 꼬마 비행기들이 있을 뿐 동무들은 익수가 공작크르쇼크에 다 된 모형을 내는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익수는 만들기 시작한 것을 끝내기 전에 곧 싫증이 나서 딴 것에 달려붙곤 했습니다.

방학을 하던날 학교에서는 각 크르쇼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익수는 공작 크르쇼크 모임에 참가하였지요.

이 크르쇼크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크르쇼크 동무들은 방학동안에 꼬마 기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6•6절에 꼬마 기선 경기대회가 열리는 까닭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신작로 길에서 동무들은 익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수야 이번에 너 꼭 멋있는 기선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다 말아서는 안돼— 읍에 있는 학교하구 대항 경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말이다》.

《혼자 만들기가 힘들면 말야, 학교에 나와 같이 만들어두 돼》.

이 말에 익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동무들이 혀를 챌 만큼 멋진 기선을 혼자서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고 생각한 까닭이였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던 그 날부터 익수는 헛간에 들여박혔습니다. 익수는 나무를 깎고 맞추어 기선의 웃 몸뚱이며 밑바닥대며 굴뚝등을 아주 탐탁하게 맞추었습니다. 이제 기선이 물우로 달리려면 배꼬리에 달아야 할 프로페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익수는 프로페라를 만들 함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뜰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는데 삼봉이가 찾아왔습니다.

《얘, 익수야 야단났어—》.

《뭘말이냐?》.

《토끼새끼가 인젠 다 커서 한데 둘 수가 없어》.

《삼봉이 넌 또 동물원 이야기를 하는구나—》.

《익수야 네가 토끼장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겠다. 우리 분단의 동물원을 위해서 말이야—》.

《난 요새 틈이 없다. 동물 크르쇼크원들끼리 만드는게 좋을게다》.

익수는 흥미없는 얼굴을 지어 보이며 헛간의 구석구석을 뒤지는 일에 달라붙었습니다. 삼봉이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토끼장을 만들어 준다고 모자라는 재료들을 마련해 두라고 그렇게 말하군 한 익수였던 때문이였습니다.

《토끼장 앞에 칠 쇠그물이랑 지붕'감 함석을 구해두라구 그러구는 익수 넌 이제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삼봉이는 돌아섰습니다. 대문'간까지 나왔을 때 익수가 불들었습니다. 익수는 삼봉이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말 지붕'감 함석을 구해두었니?》.

삼봉이는 익수를 바라보며 턱을 끄덕거렸습니다.

《됐다》.

《토끼장을 만들어 줄래?》

《난 지금 함석조박을 찾댔어. 기선 만드는데 필요해—기선을 다 만들구 토끼장을 만들자—》.

익수는 삼봉이게서 함석쪼박을 얻어왔습니다. 그것으로 프로페라를 땄습니다. 베아링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쇠줄로만든 종'대를 프로페라에 꽂고 납땜을 했습니다. 납 땜은 협동조합 야장'간에 가서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해달랬습니다. 그래서 익수는 고무줄과 련결한 종'대와 프로페라를 배 꼬리에 붙인 베아링그에 끼워 달았습니다.

익수의 기선은 드디여 만들어졌습니다.

포푸라 나무의 물 오른 잎새들이 오후의 볕을 투기고 있었습니다. 포푸라가 선 우물 옆 길로 달음질을 치던 익수는 뚝에서 나려서는 삼봉이와 마주쳤습니다.

《익수, 너,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니?》.

《삼봉아, 날 따라와 봐—》.

《난 오늘 토끼풀 당번이야—》.

《잠'간이면 돼— 내 기선을 시운전해 보려구 그래—》.

그러면서 익수는 삼봉이 코앞으로 기선을 내밀었습니다. 삼봉이는 빼앗듯이 기선을 받아 이리저리로 살폈습니다.

《익수, 이거 정말 네가 만들었니?》.

익수는 말 없이 턱을 올려뽑으며 삼봉의 손에서 기선을 빼앗았습니다. 웃쭐해지는 까닭이였습니다. 그리고 익수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버릇 인것 처럼 삼봉이도 익수의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장풍 늪으로 나온 두 소년은 숨을 드릴 사이가 없었습니다. 익수는 기선의 프로페라를 돌려 고무줄을 감기 시작했고 삼봉이는 물에 들어설 준비로 발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요전만해도 삼봉이는 익수의 서툴게 만든 요트를 숱애 건져내야했던 까닭이였습니다.

그런데 익수의 기선은 물우로 제법 달리는 것이였습니다.

《야, 이거—》.

삼봉이는 소리쳤습니다.

감긴 고무 줄이 풀리는 동안 프로페라는 물을 제법 갈으며 기선을 늪의 맞은 쪽 기슭까지 띄워 갔던 까닭이였습니다.

《삼봉아, 넌 발을 괘니 뽑았어—》.

신바람이 난 익수는 늪 기슭을 돌아 뛰여갔습니다.

그런데 삼봉이는 발을 뺀대로 두번째의 《시운전》을 기다리길 잘했습니다. 익수의 기선의 둘째번 《항행》은 늪 한 가운데서 멎으며 배 몸뚱이를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삼봉이는 얼른 늪으로 들어가 기선을 건져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였습니다. 《시운전》을 거듭할수록 《항행》 거리는 줄어만 갔습니다. 그만 익수의 나쁜 버릇이 터졌습니다. 얼마 달리지 못하고 물밑으로 끼우는 기선을 삼봉이가 끈'기있게 또 건져다 주었을 때 익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기선을 늪'가 감탕판에 내 던졌습니다.

눈을 숨벅거리며 자기를 바라보는 삼봉이에게 익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봉아, 우리 가서 토끼장을 만들자—》.

그러나 삼봉이는 익수의 말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익수, 네겐 정말 나쁜 버릇이 있어, 요전엔 요트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구 이것저것 만들어 나무만 없애더니, 오늘은 다 만든 기선을 집어 던지는구나— 재료를 허비만 하는 그런 기술자가 어디 있어?》.

《가지 않는 기선이 무슨 소용이야—

난 토끼장이나 만들테야》.

《처음엔 잘 나가지 않았니, 좀 생각해 봐—》.

그러며 삼봉이는 기선을 집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익수는 삼봉이에게서 기선을 받아들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웬일인지 빵빵이 감았던 고무줄이 채 풀리지 않은대로 있었습니다. 익수는 무심코 프로페라를 살짝 건드려보았더니 고무줄이 풀리면서 프로페라가 바르르 돌았습니다.

기선의 웃 몸뚱이를 잘 못깎은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던 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페라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프로페라와 베아링그 사이에 쇠고리를 끼우지 않았었다는걸 알아낸 까닭이였습니다.

《그렇지— 푸로페라와 베아링 그 사이에 쇠고리를 끼워야 푸로페라가 잘 돈다는걸 난 생각 못했구나》.

《요전 크르쇼크 모임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

《그래 난 지금까지 손재간으로만 공작품을 만들었지 배운 지식을 잘 써가면서 만들줄은 몰랐어》.

《정말 넌 그랬니?》.

《배운것하구 손 재간하구 맞먹어야 된다는걸 알았다》.

그러며 익수는 기선을 들고 야장'간으로 달아갔습니다. 삼봉이는 벌씬 웃고 토끼풀을 뜯으려 뚝길로 올라섰습니다.

6•6절 경기에 익수는 그가 만든 기선을 들고 나갔습니다. 익수의 기선이 얼마나 잘 달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만들다 집어 치우는 익수의 나쁜 버릇은 점점 없어져 간것만은 사실입니다. 동물원에 새로 만들어 놓은 토끼장을 동무들에게 소개하며 삼봉이는 익수가 이담에 훌륭한 기술자가 될거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1956. 5. 13—

너희들을 축복 한다

정 서 촌

가장 좋은 새양복 새뜻히 갈아
  입고
붉은 넥타이 다시 한번 고쳐 매
  며
6•1절 이 아침
집을 나서는 사랑하는 아이들
  아!

이날을 축복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온세상 어머니
  들이
너희들의 행복 위해 주신 이날을

너희들을 축복한다.
기중기 돌리며 쇠'물을 부으며,
바다처럼 물결치는 푸른 논'벌
  에서
그 어데서나 너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이땅에 피여난 꽃떨기들아
아스팔트 넓은길 행진을 하며
이삭패는 드렁길을 웨쳐 나가며
얼마나 기쁘냐 가슴 벅차냐,
6•1절 너희 위해 펼쳐진 이날은

해'님이 눈부시게 비치여 주는
너희들의 앞길은 넓고 넓어라.
그렇다 그 길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거침 없이 나아가라고
조선 로동당이 열어 놓았다.
원쑤를 몰아내고 닦아 놓았다

소년단 기'발을 높이 올려라
6•1절 이 아침 모스크바와
북경의 동무들도 모두 즐긴다.
너희들과 같은 빛 넥타이를 날
  리며
너희들과 함께 뛰는 가슴을 안고

참말로 행복하여라 너희들은
그러나 잊지말라 즐거운 이 아침
남반부 땅우에 헐벗은 아이들을
미국놈 채찍에 피흘리는 동무들
  을

이러서라 아이들아 원쑤를 미워
  하며,
온세계 동무들과 손에손 굳게
  잡아라
로동당이 열어놓은 평화로운 길
민청언니 뒤따라 힘차게 나가라

자랑스런 기'발 소년단 기'발
  아래
남반부의 동무들과 함께 서기
  위해서
행복한 땅우에 같이 살기 위해서

빛나는 영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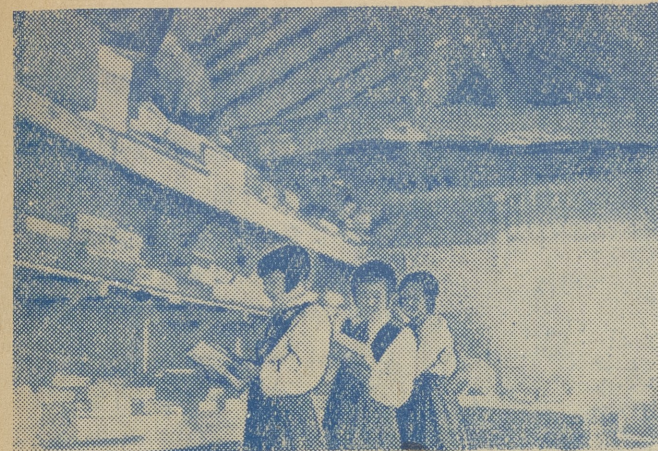
학과 학습과 소년단 사업을 훌륭히 해온 평남 온천 제 1중 학교 대는 지난 5월 30일 민청 중앙 위원회 《영예의 등록장》에 등록되였습니다.

처음으로 온천 제1 중학교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학교의 실습지와 동물원, 실험실과 공작실, 그리고 굉장한 표본실과 도서실 등 훌륭한 설비에 놀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이 훌륭한 설비를 갖추고 오늘 마음껏 관찰하며 실험하며 꾸준히 연구해가는 크루쇼크원들의 활동 모습에 더욱 마음이 쏠리게될 것입니다.

이 학교에 크루쇼크들이 조직되게 된것은 지난해 봄이였습니다.

어느날 학교에서는 김 태준 선생님을 모시고 어린 식물 학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향토 연구실에는 돌도끼와 골각기등을 비롯하여 리조 시기의 백작(병이름) 갓신, 표주박, 동철기(구리쇠로 만든 그릇) 엽전 등 많은 력사 유물들과 고향의 력사 연구록 민요 민화 전설집 고향의 고적들과 중요 산물들의 그림을 그려 넣은 《향토지리 구역도 등》 귀중한 자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생물 크루쇼크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표본실은 마치 자그마한 박물관 같습니다. 식물 표본, 곡물 표본들과 곤충표본, 박제표본, 액침 표본들이 900여종이나 됩니다.

이 모임에는 식물 채집을 즐겨하는 동무들, 집에서 화분을 다루는 동무들, 꽃밭을 가꾸는 동무들 많은 동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고 자기 분단들에서도 식물을 채집하며 꽃밭과 실습지를 가꾸자고 의논했습니다.

이리하여 학교에는 처음으로 식물 크루쇼크가 조직되게 되였고 꽃씨와 화분을 모으는 한편 많은 곡식 종자들도 마련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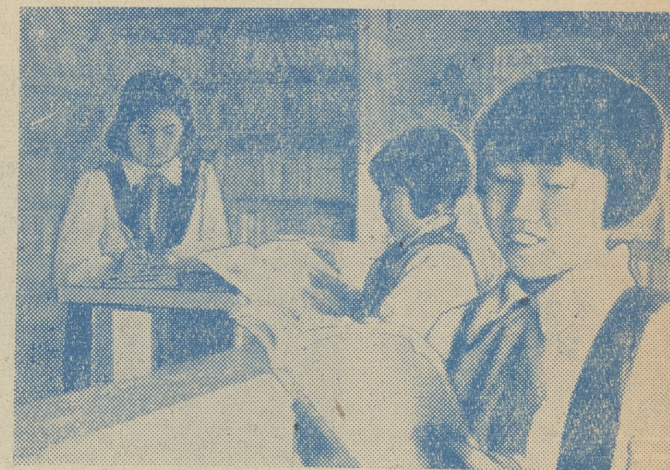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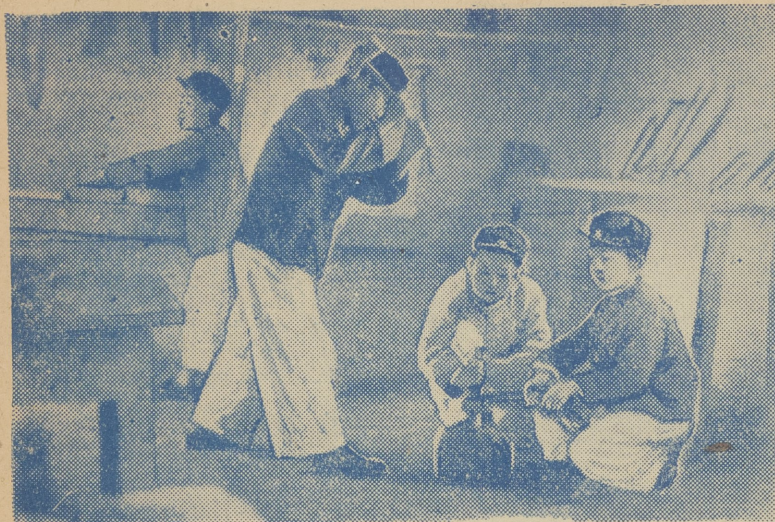
그들은 대와 분단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가며 실습지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크루쇼크원들은 밭을 갈고 씨뿌리는 일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그다음은 종자들이 싹트고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며 여러가지 실험들을 하게 되였습니다. 이 관찰과 실험은 많은 동무들에게 더욱 흥미를 끌게 하였습니다.

그후 학교에는 식물 크루쇼크의 모범을 따라 여러가지 크루쇼크들이 하나하나 늘어 갔습니다.

김 신자 동무를 비롯한 어린 력사가들도 박 건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향토 연구 사업에 나섰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마을 할아버지들을 찾아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그 가운데서 옛날 배'군들이 즐겨

도서실은 하루의 공부를 끝내고 책을 빌리러 온 소년단원, 다 읽은 책을 바치러 온 소년단원들로 한동안 흥성거립니다. 날마다 300여권의 책들이 소년들에게 나가고 그만큼 나갔던 책들이 들어오니까요. 도서실에는 5,000여권의 책들이 마련되여 있고 날마다 늘어 갑니다.

공작실에서는 지금 철공 크루쇼크원들이 탄피를 가지고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낫, 호미들을 만들었고 목공 크루쇼크원들은 끄마 기중기, 기상 관측 기구, 표본함들을 만들었습니다.

불렀다는 《봉적 타령》이며 《서촌 기나리》 등 많은 민요들을 모으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은하리의 조가비 산은 오랜 옛날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면서 조개들을 잡아 먹고 버린 것이 파묻혀 된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크루쇼크원들은 은하리의 조가비산을 파보게 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뜻밖에도 수 천년전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쓰던 돌도끼와 귀중한 골각기(짐승의 뼈로 만든 생활도구)들을 얻어냈습니다.

온실에서 겨울을 난 100여개의 화분들에서는 가지가지의 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크루쇼크원들은 은향나무의 삽목 실험이며 인공 수분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고향 마을의 지도를 만들었고 어떻게 자기 고향 마을이 발전해 왔는가도 알아보군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학교 크루쇼크들의 사업은 더욱 잘 되여 갔습니다.

실습지의 한해 사업을 총화한 식물 크루쇼크에서는 교재원을 가꾸기로 이름난 애원 인민 학교 동무들과 서로 경험을 나누고 새해부터는 더 많은 곡식들을 심고 보다 훌륭히 가꾸며 배워 나가기 위해 로력했습니다.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자라는 수족관입니다. 알에서 까난 새끼 붕어에 대한 관찰도 재미있습니다. 새끼 붕어들이 자랑스럽게 헤염치니까요.

그들은 평북 영예 군인 농업 학교를 견학하고 여러가지 새로운 방법과 경험들을 배웠으며 130여종의 곡물 종자들을 선물로 얻어오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에는 가지 가지 농작물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심어 놓고 싹트고 자라는 것을 서로 비교해 가며 식물에 대한 지식을 깊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과와 배, 살구와 복숭아의 접목 방법들도 실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크루쇼크원들을 제법 알아본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가축들과 너구리, 여우, 오소리, 등 야생 동물 그리고 10여종의 조류 기타 뱀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학교의 여러 크루쇼크들에는 가지 가지 훌륭한 경험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대 및 분단들에서는 소년단원들의 학습을 도와 여러가지 모임들과 행군 견학 등 많은 일들도 훌륭히 조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학교 대의 이름은 오늘 민청 중앙 위원회의 영예의 등록장에 빛나고 있습니다.

(신 진 균)

박 세 영

동무들아 반두 들고
무엇하러들 가니,
붕어새끼 잡으러
시내'가로 가니
아니아니 우리들은
논두렁으로 간다
개구리를 잡으러
푸른 들로 간다.

너희들은 맨손으로
어디루 놀러 가니
동산으로 강'가로
놀러들만 가니
아니아니 우리들도
조합 도우러 간다
작년에도 해본 솜씨
모 심으러 간다.

동무들아 개구리를
얼마나 잡나 보자
뛰잘뛰는 개구리
잘들 잡나 보자
잘뛰면은 뭣하니
보이는 대로 잡지
소와 돼지 살찌우게
천백마리 잡지.

동무들아 어디 보자
모를 얼마나 심나
너희들도 두고 보자
개구리 많이 잡나
그래 그래 내기 걸자
누가 이기나 보자
어느편이 잘했나
저녁때에 보자.

즐거운 레일의 려행

첫5개년 계획이 끝나면

독로강
강계 발전소

자동차 조립 공장엘
갔다 오겠습니다
건설 기계 공장에
갈 기계도 실었지요?

실구 말구!
다음 차 엔
농기계공장과
조선소에 보낼
기계를실게됩니다

우리 나라에는 그전에 없던
새로운것이 참으로 많이
생겼지! 자 공작기계 공장
이요 새 광산이요
새 발전소요 그중에서도
공작 기계 들을 씽씽 만들어
내는 것은 큰 자랑이란다!

이젠 석탄을
외국에서 사오지
않아도 됩니다
무연 탄으로 까스를
만들어 쓰게도
되였지요

방직공장
비 료
년산 40만톤이상
야! 여기선 고운 천들이 쾅쾅 나오는구나
공기로 만든 비료가 백두산 처럼 높아 지네
이것이 모두 우리 나라에서 만든 기계를 가지고 만든 것들이란다 네 자전거도 우리가 만든거다!
년산100~150만톤
올리막에도 같은 속도로 달리는군!
고원 ↔ 신성천
고인 ↔ 개고
쎄멘트랑 건설 기계랑 많이 만들어 공장이랑 집이랑 학교를 조립식으로 빨리 짓지요
참 기술자가 많아야 겠지! 난 기술전문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겠어!
너희 집은 어데니?
저 4층집 9호실이란다 놀러 오렴?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회

구락부

어디를 가나 다
훌륭한 협동조합이지만
여기서 하루밤 쉬면서
잘 구경해 주십시요
집에야 래일 돌아
간다고 전화를 걸면
되지 않겠어요

고맙
습니다

국영 백화점

탁아소

리진료소

모두 값싸고
좋은 물건 들이예요
우리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을 마음대로
사게 되였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꿀벌과 나비

박 인 범

봄비가 보슬보슬 나리던 날이였습니다.

날아가던 꿀벌 한마리가 비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느 배추꽃 밭으로 찾아 들어 갔습니다.

배추꽃들도 온통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추꽃들은 비에 젖은 꿀벌을 반가히 맞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꿀벌은 배추 잎사귀 밑에서 쉬게 되였습니다.

여기서 꿀벌은 새'하얀 나비 한마리를 만나게 되였습니다.

«야, 나비야 너도 비가 와서 여기 앉아 있니?»하고 꿀벌이 인사를 하니까 나비는 날개를 벌쭉거리며 «응»하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비와 꿀벌은 배추꽃 포기 밑에서 오손 도손 이야기를 하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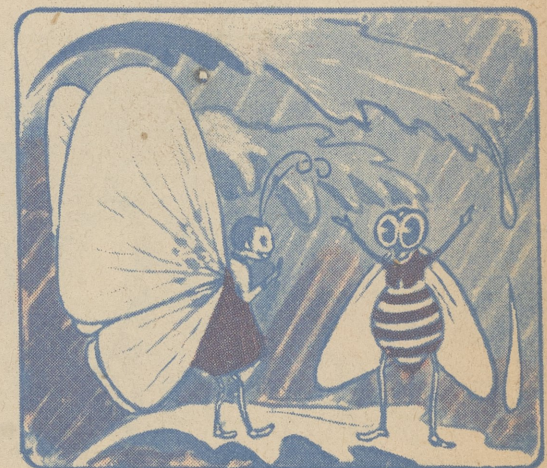
«나비야 너의 집은 어디니?» 꿀벌은 비 맞은 날개를 펼쳐 말리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 집은 해 뭘해?».

하고 나비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집이 쓸데 없다니? 그럼 너의 집에는 애기들도 없니?»하고 꿀벌은 이상하다는 듯이 또 물었습니다.

«애기들? 그런것도 일없어!»하고 나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듯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운 옷 차림을하고 나풀나풀

춤추는 나비를 꿀벌은 늘상 만나기는 했어도 나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오늘이 처음이였습니다.

《나비야 그럼 오늘 밤엔 우리 집에 가서 자자 너는 집이 없다니…》하고 나비를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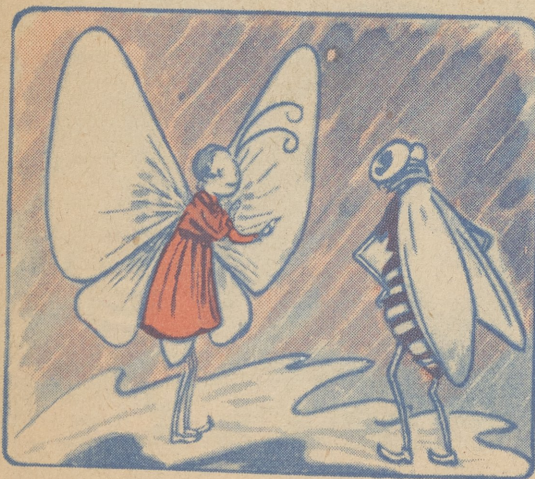
그러나 나비는 고맙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피시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처럼 집이 있는 것이 부럽지않어》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꿀벌은 깜짝 놀라며 《뭐야?》하며 나비를 바라 보았습니다.

《흥, 그렇지 않구 너이는 집을 짓고 집속에는 우글우글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비오는 날도 안타까워서 집으로 가야만 하지 않니? 나처럼 혼자 놀러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실컷 꿀을 먹으면 되구 비가 오는 날도 이렇게 꽃 입사귀에 쉬였다가 가면 아무 걱정도 없거든!》하고 까불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 ×

얼마만에 보슬비는 멀리 산밑으로 가고 배추꽃들도 비 맞은 머리를 쳐들며 방긋이 웃었습니다.

구름도 훨신 벗겨져 따뜻한 해'빛이 비쳤습니다.

이때 배추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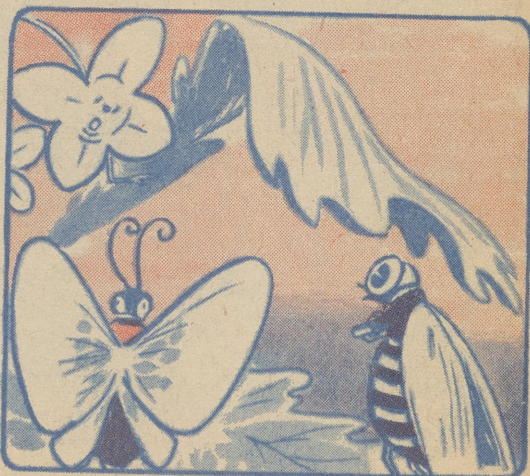
《얘 꿀벌아 나비야! 저 건너 우리들의 어린 배추들이 자라고 있는 밭에들 좀 가봐 주렴아, 무슨 일인지 며칠전부터 어린 배추들의 울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꿀벌은 딱한듯이 배추꽃을 바라보며 곧 그러마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비야 우리 같이 가 보자》하고 나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난 싫어!》하고 퉁명스러운 대답 한마디를 남긴채 어디로인지 훌쩍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야 나비는 왜 그럴가 배추꽃은 우리들에게 비를 맞지 않게 해주었고 또 꿀도 주는데 그것좀 알아봐 주는 것이 뭐이 싫담?—하고 생각한 꿀벌은 혼자 붕! 날아서 배추꽃이 부탁한대로 어린 배추들이 나풀나풀 자라나고 있는 배추밭으로 갔습니다.

배추밭에 이르자 꿀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싱싱하게 자라나는 어린 배추잎사귀에 크고 작은 구멍이 뻥뻥 뚫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였습니다.

꿀벌은 넝큼 배추 잎사귀에 내려 앉아 두루 살펴 보았습니다.

이때 《아야 아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배추들의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마음은 아팠습니다. 얼마만에 꿀벌은

《야 요놈—》하고 바로 입사귀빛 같이 새'파란 벌레 한놈을 마침내 붙들어 냈습니다.

《이놈 너 어디서 왔니? 응 어디서 왔어 왜 이 배추들을 뜯어 먹느냐 말이다. 어서 대답을 못해》하고 사뭇 성이 나서 야단을 했습니다.

무서워 움치러 들었던 푸른 벌레는 한참만에 《난 어디서 오지 않았어요. 난 우리 엄마가 여기다가 우리를 낳아 놓고 이 배추들을 맘대로 갉아먹고 살라구 그랬어요》 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꿀벌은

《뭐? 너이 엄마가? 대체 너의 엄마가 누군데 응?》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푸른 벌레도 제법 뽐내면서

《우리 엄마도 훨훨 날아 다니며 꿀을먹고 사는데 그것도 모르나 머?》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뭐야? 꿀도 먹고? 날아도 다니구? 그게 누군데?》 꿀벌은 이상하다는듯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흥 우리 엄마 말이지 우리 엄마는 하얀 나비다 어째? 좀—》푸른 벌레는 제법 가슴팍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꿀벌은 이 말을 듣자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흰 나비가? 옳지 그러니까 식구들도 염려 없구 집두 소용 없다지 고약한놈 잘 자라야할 어린 배추들을 맘대루 갉가 먹으라구…》.

꿀벌은 다시 배추꽃에로 갔습니다 꿀벌의 말을 들은 배추꽃은 여간 분하게 생각한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만나는 하얀 나비가 그렇게 나쁜놈 이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였습니다.

꿀벌과 배추꽃은 이 일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의논했습니다. 그 끝에 꿀벌은

《정말 분하기는 하지만 나비는 몰라서 그런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좋지 않어?》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분히 여기던 배추꽃도 꿀벌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러자》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저기 개나리꽃 울타리쪽으로 꿀을 잔뜩먹고 빗틀빗틀 날아가는 나비가 보였습니다.

꿀벌은 흰나비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나비야 너는 너의 아들딸에게 배추를 갈가 먹으라구 했지, 넌 혼자 꿀만 먹으며 돌아 다니구… 갈가 먹히우는 배추들은 죽지 않니? 넌 그래도 좋으냐?》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때?》 나비는 꿀벌의 말을 듣자 벌컥 성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비야 그러지 말구 너두 우리 꿀벌들처럼 집을 짓고 애기들과 함께 살려므나—》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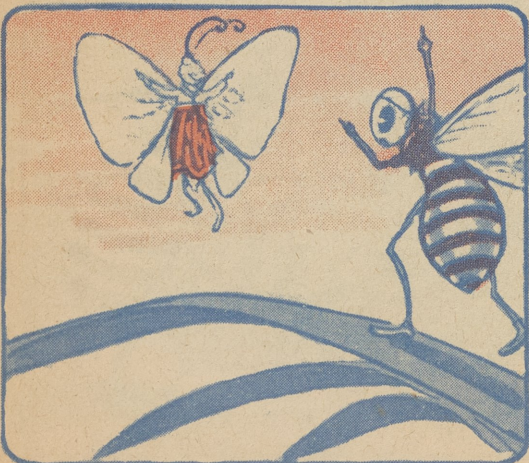
그래도 나비는 심통스러운 얼굴로

《싫다 누가 귀찮게 집을 짓고 애기를 기른담》하고 픽 돌아서더니 다시는 꿀벌과 마주 서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꿀벌은 나비를 만날때마다 좋은 말로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한번도 꿀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 ×

어느듯 여름도 거의 지나고 가을이 닥쳐 오게된 어느 날이였습니다.

집없는 나비는 단풍나무 밑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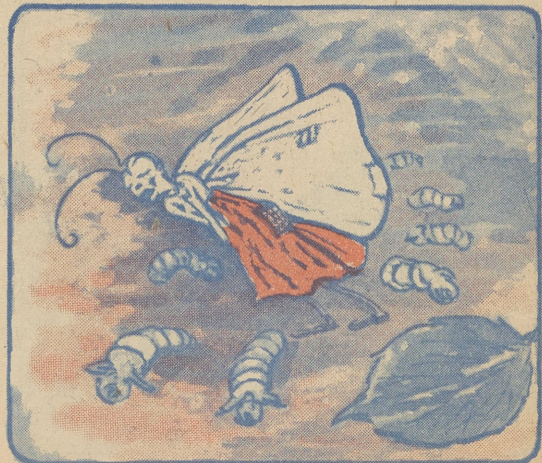
—왜 나는 꿀벌이 말한대로 집을 짓고 식구들과 오붓하게 지나지 않고 엄벙 덤벙 지났을까? 추위는 닥쳐 오는데 우리 애기들은 모두 어떻게 되였을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다시 어떻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휘 휘—》 산넘어에서 가랑잎들이 휘몰며 옵니다. 무서운 바람은 마침내 단풍나무를 뒤흔들어 줍니다. 단풍나무에서 뚝 떨어진 하얀 나비는 바람에 휩쓸려 먼곳까지 불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갈가 먹던 푸른벌레들은 전달맹이 흰나비로 되기전에 배추밭 주인들이 잡아 치웠습니다.

그러나 꿀벌은 따뜻한 봄에서부터 춥지 않은 가을까지 산도 넘고 강도 건너 꽃밭을 찾아 다니며 꽃들의 꽃가루를 이리저리 옮겨 주었습니다. 꽃들은 꿀벌에게 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꿀벌은 집도 잘짓고 겨울에 먹을 꿀도 장만해 두었습니다.

겨울이 와도 꿀벌의 식구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꿀벌은

—흰 나비의 애기들은 귀여운 작은 나비인줄 알았더니 배추를 갈가 먹는 푸른 벌레였구나—하고 지난 봄에 있었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앞날의 건설자들

—해주 제2 인민 학교대에서—

고향의 사판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 건설자들은 진흙을 꽁꽁 다지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강에 황해 바다로 통하는 운하를 파면 좋겠지?》.

사판우에 도랑을 파며 광석천을 만들던 용화동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배들이 시내 한복판까지 들어 올 수 있을거야》하고 누가 말하자 《그래 참 좋은 생각이야》 어린 건설자들은 손벽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용화와 연성이는 운하를 파고 우리는 여기에 5층집을 짓자》. 영묵 동무는 제법 건설 기사아저씨처럼 설계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운하를 파는 일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다 못해 용화동무는 건설 트레스트 기사 아저씨를 찾아 가기로 했지요.

다른 동무들은 꼬마 복구대의 노래를 부르며 넓은 거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훌륭한 집을 짓는가 서로 내기하며 부지런히 흙을 다지던 이들은 《앞으로 나는 최 성수 로력 영웅 아저씨처럼 일을 할테야》.

《나는 기중기를 운전하겠어》.

이렇게 서로 속사기는 것이였습니다.

《그래 넌 산수에 3점을 받으면서두 훌륭한 운전수가 될 수 있다구 생각하니?》. 옆에서 전차 모형을 만들고 있던 분단 위

원장 동무가 칠성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칠성 동무는 머리를 끄덕이며 《응 나도 이 사판을 만들면서 생각했어 뭐든지 힘쓰면 된다구. 난 방학 동안에 산수를 열심히 복습할테야》라고 마음다졌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는 너를 도와 줄게》하고 모두 만족해하는 것이였습니다.

며칠전일입니다.

선생님은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이들은 5년후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훌륭하게 달라질 것인가를 눈앞에 그려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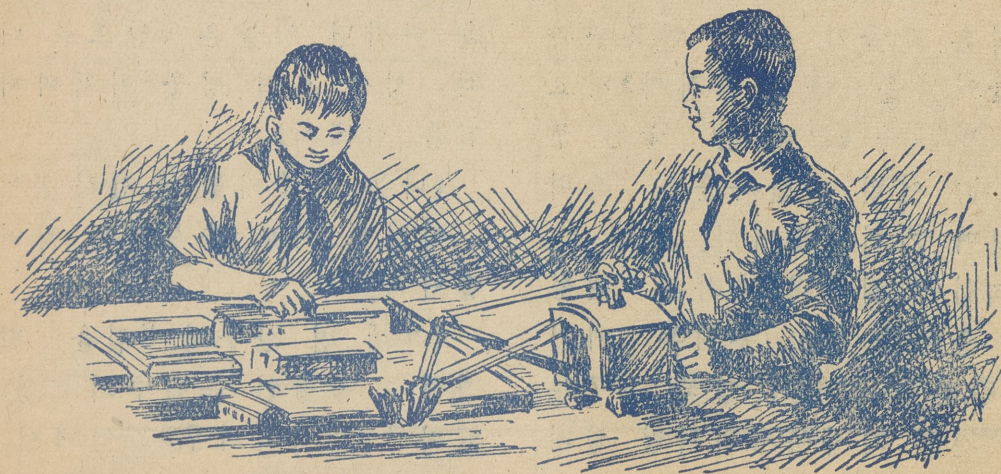
이때에 소년단원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앞날의 아름다운 고향을 모두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했으면 좋겠다고들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제5 분단 모임에서는 자기들의 머리에 그려본 고향의 앞날을 사판으로 멋지게 만들어 보기로 의논되였습니다.

벌써 훤히 틔인 거리의 량쪽에는 3층 4층집 모형이 나란히 줄지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버드나무 가지로 띄염띄염 가로수도 심고 주택마을에는 꽃밭도 꾸며 놓았지요.

《참 멋이 있는 거리가 되였어》. 어린 건설자들은 훌륭히 만들어져 가는 고향의 사판을 들여다 보며 모두 기뻐했습니다.

《얘들아 이만하면 해방탑 모형이 됐지》. 형석 동무는 석고로 솜씨있게 만든 해방탑 모형을 꽃밭에 세우며 우쭐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모란봉 해방탑처럼

남산에 세워야 해, 그래야 어데서나 해방탑이 보이거든》. 얼마전에 평양에서 전학을 해온 곽 순남 동무가 하는 말이였지요.

이리하여 남산 기슭에는 새공원을 꾸미기 시작하고 해방탑을 세웠습니다.

《동욱아 빨리 잔디를 갖다 다구》. 형석이가 소리치자 잔디와 나무가지를 실은 꼬마 자동차를 몰고 동욱이가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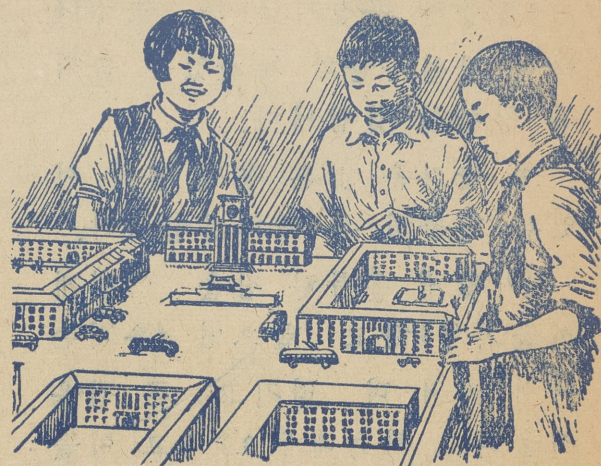
공원에는 여러가지 나무와 잔디를 심고 석고로 만든 벤취의 모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구 보니 아주 훌륭한 문화도시가 건설되였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그럼 이제부터 이곳 어린 건설자들의 힘으로 꾸며진 앞날의 해주시 사판을 구경하기로 할가요.

기차를 타고 온 손님이면 우선 정거장에서 나와 넓게 닦아놓은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동쪽으로 뻗은 거리에는 무궤도 전차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을 시작합시다.

《저 훌륭한 집들에서는 누가 살게 될가요?》하고 어떤 동무들은 물을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집들에서 말이예요.

우리는 이 집들에서 아침마다 일터로 가시는 우리 아버지들과 붉은 넥타이 휘날리며 학교로 가는 소년단원 동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걸음을 재촉해서 남산에 올라 봅시다.

그러면 동무들은 넓고 푸른 바다를 내다 보며 《야 려객선이 운하를 지났구나》하고 소리칠것입니다.

그리고 우뚝 솟은 공장 굴뚝이 눈에 띄울 것이지요.

바로 이 공장에서는 우리 나라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서쪽으로 가면서 화학 공장과 연와 공장을 견학하기로 합시다.

새로 건설한 화학 공장은 지금 공장보다 세배나 더 넓혀 지

은 것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공장이군…》 누구나 어린 건설자들의 재간있는 솜씨를 칭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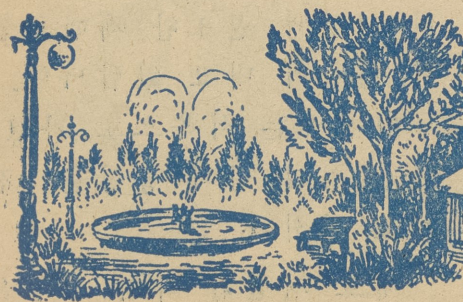
또 놀라운 것은 공장 옆에 서 있는 굉장히 큰 영화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을 어떻게 지을가?》하고 물으면 《우리는 어서 커서 더 멋지고 큰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두요》라고 이들은 자랑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저수지에 가서 뽀트를 타며 놀 수도 있지요.

이곳에는 경치 좋은 휴양소도 있답니다.

여기에서 동무들은 로동자 아저씨들이 즐겁게 휴식할 수 있도록 아담하게 꾸며 놓은 크고 작은 집들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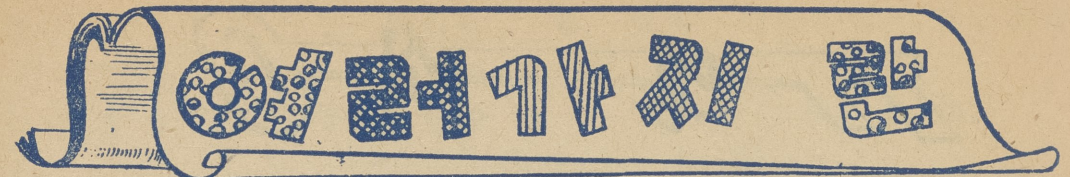
《며칠을 쉬다 갔으면…》하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지요.

다음에 분단 위원장 동무는 고향의 자랑인 고적지들에 안내할 것입니다.

수양산 밑에 화려하게 서 있는 천왕석비 5층탑 정각사 등 수 많은 고적지 답사를 마친 동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살기 좋은 도시구나!》.

그러면 동무들에게 안내를 해주던 분단 위원장 동무는

《우리들이 크거들랑 우리의 고향을 우리들의 손으로 이 사판보다 몇배나 더 훌륭하게 건설할 것이예요》하고 우리 나라가 바라는 기술 일'군으로 훌륭히 배우며 준비하고 있는 자기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박 정 렬)

아름다운 이야기

어느날 박 영여와 전 영옥 차순덕 세동무들이 철'길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기차가 지나간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철'길 옆에 쌓여 있던 침목에서 연기가 몰몰 솟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관차에서 날린 불인가 봐》. 영여가 이렇게 소리치자 세 동무는 함께 달려 갔습니다.

연기나는 곳까지 다달았을 때는 벌써 침목에서 막 불'길이 일어 나려고 하는 위험한 순간이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새도 없이 붙는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발로 밟기도 하고 부비기도 했으나 불은 더욱 성을 내듯 확확 붙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끌 수 없음을 깨닫자 순덕이는 정거장으로 달려가 역원 아저씨들에게 알리기로 하고 남은 영여와 영옥이 둘이서는 진펄에서 흙을 날라다 계속 덮으면서 불'길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후 순덕이와 함께 갈구리와 물통을 든 역원 아저씨들이 달려 왔습니다.

이리하여 불을 곧 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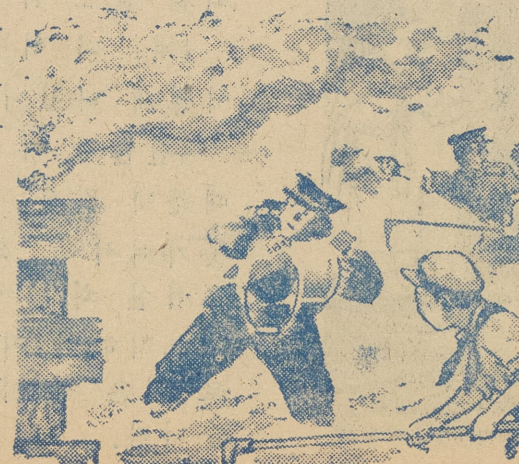
불을 완전히 끄자 아저씨들은 연기에 끄슬린 세소년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방울을 씻어 주며 몇번이고 칭찬했습니다.

《동무들은 참다운 소년단원들입니다》라고.

정말 그들은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요.

* *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함남 인흥군 제5중학교 인민반 3학년 벽보에 실렸었습니다.

(김 종 상)

열 쇠

이것은 지난 5월 4일 함북 어대진 인민 학교 대에서 있은 일입니다.

공부를 끝마친 많은 소년단원 동무들은 도서실로 갔습니다.

뜻밖에도 도서실에는 쇠가 잠겨 있었어요. 늘 남먼저 와서는 쇠를 열고 반가이 맞아 드리던 기욱 동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무들은 《웬일일가》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욱 동무는 어떤 일이든지 맡은 일은 꼭꼭 해내고야 마는 동무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모두 이상히 생각할 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전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온 기욱 동무는 밤부터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의 머리에 찬물로 적신 수건을 얹어주군 하며 열이 내리기만 기다렸지요. 아침결부터 열이 내리며 포근히 잠들었던 그는 점심 시간이 가까와서야 정신이 들었지요.

《어머니 지금 몇신가요》. 기욱 동무는 부시시 일어나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12시가 가까워 올거다. 좀 더 푹 쉬렴》.

《아니예요, 난 인제 어서 학교에 가야 하겠어요》.

《좀 더 지내 보구 가렴, 바람 맞으면 못써》.

《안요, 곧 학교에 갔다 오겠어요. 꼭 내가 갔다 올 일이 있어요》. 김 기욱 동무는 학교로 달려 갔어요.

도서실 앞에 모였던 많은 동무들이 돌아 가려는데 아직도 열 기운이 남아 있어 얼굴이 붉으스레한 기욱 동무가 손에 열쇠를 들고 뛰여 왔습니다.

《얘, 너 어디 아픈 모양인데 어떻게 나왔니? 쉬지 않구》.

《괜찮아 다 나았어, 나 하나 때문에 많은 동무들이 모임을 못가져서야 되겠니》하며 그는 도서실 쇠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계획했던대로 읽은 책 이야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어떤 일이든지 맡은 일을 어기지 않고 해내는 기욱 동무의 훌륭한 행동을 높이 칭찬하며 감탄했습니다.

(리 종근)

☆

한 M

—용남아 너 뭘 하니?—
학교에서 돌아오던 3학년생 용철이
길 바닥에 흰 줄 그었다 지웠다 하는
동생 보고 물어 봤지요.

고개를 갸웃갸웃
무엇인가 애 태우던 용남이
방실방실 반가운 웃음 짓고서
툭툭 손을 털며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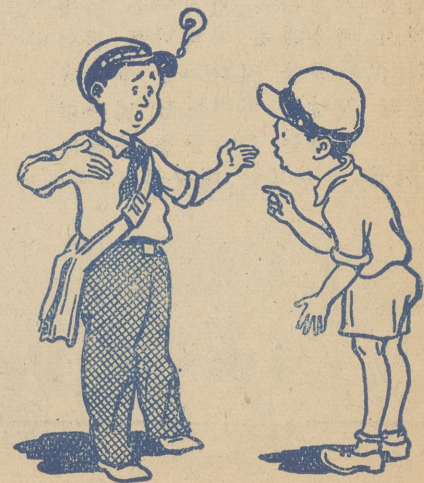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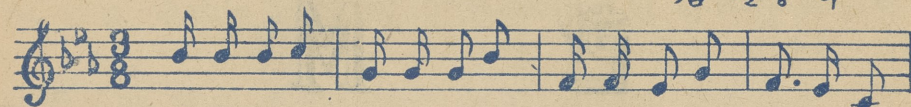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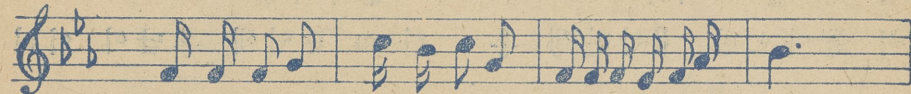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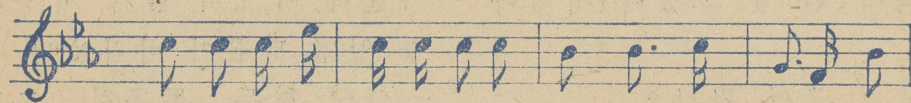
—난 뜀뛰기 선수 되고 싶어서
이제부터 련습하려 하는데
한 m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형은 알지? 나좀 알켜주어—

용철인 어깨를 으쓱
—그래 그것도 몰라
한 m는 백cm지
이만큼이야 이만큼—

팔을 벌렸다 좁혔다하며
용남이께 알려주려 하것만
길어졌다 짧아졌다 자꾸
달라지는
한 m 길이에 용남이 어리벙벙

어물쩍 이고비 넘겨 치우려는
형 얼굴 말끔이 바라보던 용남이
—아앙 형두 똑똑히 모르는구나—
그렇겐 나두 알아 나두 알아머—

× ×

배울땐 어물어물 수'자만 외고
한 m의 길이 똑똑히 모르는
이런 용철이 보고도 웃지 못할
동무들이
우리 결엔 없을 것을 나는 바래요.

해당화꽃 붉게피여 반겨주는 백사장
학과에서 배운해초 저마다들 뜯어와
바다의 보배들을 익혀가는 즐거움
우리들의 앞날은 바다처럼 넓단다
넓고깊은 바다는 우리들을 부른다
이 바다를 이겨가는 영웅들로 자라자

해'빛 쨍쨍 백사장에 모래찜도 즐겁다.
밀려드는 큰물결 맞받아 헤여가는
우리들은 씩씩한 조선의 소년단
저멀리 고기'배의 풍어기가 날린다
바람처럼 큰 희망 다져가며 나가자
즐거운 야영 생활 몸다지며 배우자

'여름 방학은 즐겁다!
여름 방학의 한 때를 리용하여 기관차는 어떻게 달리는가를 실험해 보는 평양 제5중학교 인민반 소년단원들. 김 창규 촬영

× ×

뒤표지……"높은산 푸른산 우리들은 오른다" (황북 송림 제3인민 학교)
김 창규 촬영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창호 원 홍구 리 순길
강 효순 리 배형 림 홍은

1956년 6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6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 6호 총(81호)
발행소 민주 청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128 값 25 원 52,000부 발행